



“생활 속에서 노래하고 노래 속에서 위로받아요”

푸른솔시민합창단

30~60대 남녀 30여명 활동
민중가요 부르며 시민의식 키워
가곡·성가·팝송 등 장르 다양
5·18 행사·춧불 무대도 올라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기에/ 이토록
에타게 그리워 하는가/ 우리가 어느 별에서
그리워했기에/ 이토록 아름답게 사랑
할 수 있나/ 우리가 어느 별에서 헤어졌기
에/ 이토록 밤마다 별빛으로 빛나는가.”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운다.
정호승의 시에 안치환이 가락을 붙인
‘우리가 어느 별에서’다. 안치환은 ‘술아술아
푸르른 술아’, ‘마른잎 다시 살아서’ 등
집회 현장에서 뜨겁게 불렀던 노래들을 만
들었다. 오랜만에 노래를 나즈막히 따라
부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지난 월요일 밤 9시 즈음, 광주시 북구
한 실용음악학원. 푸른솔시민합창단의 연
습 현장이다. 30~60대 남녀 30여명
이 화음을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인
상적이다. 지역 아마추어합창단 중 남성
과 여성합창단은 많지만 남성과 여성이 어
우러진 혼성합창단은 드물다.
이날 단원들은 영화로도 만들어져 많은
사랑을 받은 뮤지컬 ‘레 미제라블’ 삽입곡
‘Do you here the people sing’, 일본 우
타고에 회원들이 즐겨 부르는 ‘인간의 길’,
‘우리가 어느 별에서’를 함께 배웠다.
푸른솔시민합창단은 지난해 3월 첫 발



정유하(사진 가운데) 지휘자가 푸른솔시민합창단을 지도하고 있다.

을 띤 신생 합창단이다. 많은 이들의 삶 속
에 함께 했던 ‘민중가요’를 생활 속에서 함
께 부르고, 노래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이들이 모였다. 그렇다고 함께 배우고 부
르는 노래가 민중가요에만 국한되지는 않
는다. 한국가곡, 외국가곡, 성가, 가요, 팝
송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
산과 역할을 한 이는 지도와 지휘를 맡고
있는 정유하씨다. 전남대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 주립대에서 박사 학
위를 받은 정씨는 광주광산구립합창단 지
휘를 맡아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왔다.
전남대 5·18 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민
중음악을 연구해온 그녀에게 늘 마음에
품은 꿈이 있었다. ‘음악으로 광주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었고, 그전 ‘음악으로 건강
한 시민정신을 만들고 공유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전남대 79학번으로 5·18을 겪었죠. 오
랫동안 민중가요 연구를 하면서 연구에만
그치면 의미가 없다고 봤어요. 힘들더라도

노래를 통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공익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모임, 문화예술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교양 시민의 모임, 더 나아가 노래
로 시민성을 표현하고 노래로 아픈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모임을 꿈꿉니다.”
정 지휘자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강요’가
아닌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녀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함께 배우며
‘긴 시간’을 갖고 꿈을 이루려한다. 지친 사
람들이 함께 노래하며 힐링받을 수 있는
합창단, 에너지를 충전해 갈 수 있는 합창
단, 조금씩 주변을 돌아보고 시민으로서 자
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합창단이 이상
형이다. 시간의 흐름과 노래의 힘에 자연
스레 ‘젖어들어가며’ 이루어지는 것이다.
사실, ‘시민’ 합창단, 민중가요라는 단어
에 무거움과 어색함을 느끼는 이도 있다.
실제 ‘데모’ 노래만 부르는 줄 알고 왔다
돌아간 사람도 있다.
지난 11월 광주교육대에 열린 창단 연

주회 레퍼토리를 보면 합창단의 지향점을
잘 알 수 있다. 가곡 ‘강 건너 봄이 오듯’,
‘향수’, ‘푸니쿨라 푸니쿨라’, ‘상록수’, ‘아
침이슬’, ‘광야에서’ 등 다양한 노래로 대
중과 소통했다.
정 지휘자와 함께 오랫동안 고민을 나눈
이가 서정훈(광주NGO센터장) 단장이다.
“3년전부터 함께 노래하는 모임이 있으
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단순히 취미로 노
래하는 것에서 한발짝 더 나아가 생활 속
에서 시민의식을 함께 키워가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시민 정신을 구현
해 나가는 일에 ‘노래’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단원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대도
직업도 다양하다. 사회운동을 했던 이들
도 있고 평범한 가정주부도 있다. 단원 이
지영씨는 음악에 대해 문외한이었다. 정
지휘자에게 악보 보는 법부터 일일이 배워
나가며 노래의 매력에 빠졌고, 지금은 가
장 열성 단원이 됐다.
“노래를 부르고 나면 지친 삶 속에서 받았
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버리는 기분입니
다. 한 시간 반동안 노래하고 나면 마음 저
바닥부터 깨끗이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이씨는 “함께 불렀던 노래를 녹음해 차
에서 들으며 귀가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때”라며 “합창단이 지향하는 가치에도 자
연스레 녹아들게 된다”고 말했다.
단원들은 5·18 기념행사와 금남로 춧불
무대에 올랐다. 행사 참여 여부는 단원들
이 협의해 결정한다.
현재 30여명이 활동중이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연습을 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는 1만원이
다. 문의 010-9660-727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레

지난해 7월 취재차 만난 김승업
서울 충무아트센터 대표는 명성 그
대로였다. 미술·공연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서부터 10년후의 비
전을 담은 로드맵까지 문화CEO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사실 김승업 대표의 화려한 이력
은 공연계 종사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서경대 화학과 출신
인 그는 서울 예술의전당에 입사한
후 기획부장, 세종문화회관 본부장
을 거쳐 지난 2005년 김해문화의전
당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취임
일성으로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문화공간’을 내세운 그는 ‘현장’에
서 얻은 전문성과 과감한 추진력을

만 ‘하우스 콘서트’, ‘1000원의 행
복’,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등 내실있는 기획으로 평균 객석
점유율 97%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바람은 자치단체
장의 문화마인드에서 비롯됐다. 광
산구(구청장 민형배)는 지난 2011
년 자치구에선 처음으로 문화기획
전문위원 이현숙씨를 발탁해 구민
들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씨는 중앙대 예술경영학과 출신
으로 전주시립극단 단무장, 전주전
통문화관 공연과장, 전주 세계소리
축제 행사부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
다.
그런 점에서 최근 광주시가 내놓

“핵심” 빠진 광주문화회관 혁신안

앞세워 개관 3년도 안된 김해문화
의전당을 영남권의 문화허브로 키
워냈다. 지난 2011~2014년에는
부산영화의전당을 맡아 명실상부
한 세계적인 영화제로 자리매김시
켰다.
지난 2015년 말 임기가 만료된
김 대표에게 리브콜을 보낸 곳은
서울시 중구였다. 전임자인 이종덕
대표의 후임물색에 공을 들이던 중
구(구청장 최창식)는 김 대표를 제5
대 충무아트센터 대표로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2016년 1월 취임기자
회경에서 국내 유일의 뮤지컬 제작
극장을 선언한 그는 영화계 인맥을
발휘해 ‘제1회 충무로 뮤지컬 영화
제’를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조직의 변
화를 이뤄낸 예는 광산문화회관도
마찬가지다. 550석 규모의 작은 공
연장인데다 번두리에 위치한 한계
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문화사랑
방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002년 건립될 당시만 해도
학예회 등이 열리는 행사장이었지

은 ‘광주문화회관 혁신안’은 시대
의 흐름과 배치된, 알맹이가 빠진
청사진이다. 근래 타 도시의 문예
회관들이 민간공연 전문가를 영입
하고 있는 추세와 달리 이번 혁신
안에는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방
형 관장제가 빠져 있다. 다음달 공
표포 앞둔 혁신안에는 시립오페라
단 창단, 예술단 통합사무국, 단원
참여제 등 포함됐지만 정작 문예회
관을 이끌어 가는 관장은 현행 공
무원 순환보직제 그대로다. 기획
공공연예보다 대관 업무에 치중
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데도 말이다.
물론 공무원 순환보직제는 행정
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1년도 못 채우고 타
부서로 이동하거나 정년을 앞둔 공
무원이 잠시 숨을 고르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광주문화회관의 변신
을 기대하기 어렵다. 언제쯤이면
‘대관전문공연장’이란 탈까지 않은
꼬리표를 뱉 수 있을런지...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광산생활문화센터, 문체부 선정 우수 센터

광주 광산생활문화센터가 문화재
육관광부·(재)생활문화진흥원이 선
정한 우수 센터 4개소에 이름을 올렸
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민 누구나 이
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공간으로 광산
센터와 함께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부산시), 금산 어깨동무 생활문화센
터(금산군), 보령역 생활문화센터(용
인시)가 선정됐다.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운영 분야 우수센터로 뽑힌 광산센
터는 30여개 동호회 활동과 운영위원
회·동호인 대표자 연합회 간 협력 구
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2일 열리는 시상식에서 (재)생활
문화진흥원장상·상금을 수여받으며
앞을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히가시노 게이고, 한국 독자에 최고 인기 일본 소설가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한국
독자에게 가장 사랑받는 일본 소설가로 꼽
혔다. 그동안 최고 인기를 누렸던 무라카
미 하루키는 히가시노 게이고에게 수위자
리를 내주게 됐다.
20일 교보문고 팟캐스트 ‘낭만서점’의
2007~2016년 일본 소설 판매량에 따르면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
적’이 1위를 차지했다.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2014년부터 3년 연속 가장 많이
팔린 일본소설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가
2위를, 오쿠라 히데오의 ‘공중그네’가 3위
를 차지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저기 쓰쿠루와 그가 손레를 떠난
해’는 다음을 차지했다.
특히 30위 안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
의자 X의 헌신’(6위), ‘가면장사 살인사건’
(8위), ‘라플라스의 마녀’(9위) 등 8편이 올
랐다. 무라카미 하루키도 ‘상실의 시대’(5
위), ‘여자 없는 남자들’(7위) 등 4편이 30
위권에 들었다.
/박성현기자 skypark@kwangju.co.kr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보2억,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무점 입점 매 13억(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보5천, 월9백만 포함)
- 월계동 2층 상가점포 195㎡ 현 뷔페 입점 매 5억5천(보3천, 월240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학원, 독서실, 헬스클럽 적합)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조정가)
- 나주 혁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1500㎡ 매 13억5천(보8천, 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보6천5백, 월400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90㎡ 건462㎡ 매 10억3천(보4천4백, 월400만 포함)
- 신가동 3층 원룸건물 대300㎡ 건441㎡ 매 8억(보3억2천, 월115만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환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문인의 산실 생오지

‘문예창작대학’ 2017년 수강생모집

2016년 신춘문예 등 6명 등단 | 전국적인 문인산실로 ‘발돋움’

재단법인 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 부설 문예창작대학에서는 2017년도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로 운영되는 생오지 문예창작대학은 매학기 12강좌를 개설해 실기 위주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국문단의 중견 작가들 강사로 초빙,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문인들을 양성합니다.
전국적인 문인산실로 널리 알려진 생오지문예창작촌은 2016년 신춘문예와 문예지 신인 문학상을 통해 6명의 신인을 배출했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정미경이 세계일보 세계문학상 장편소설공모에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생오지문예창작촌에서는 2007년 <생오지 문학의집> 개설 이후 2016년까지 모두 35명이 등단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강생 모집요강

1. 과목 인원 강의시간
 - 시창작반 30명 토요일 오전 10~12시
 - 소설창작반 30명 토요일 오후 2~4시
 - 소설등단반 15명 격주 토요일 오후 2시
 - 기초 글쓰기반 30명 토요일 오전 10~12시
2. 강의기간 : 1학기 3월 11일 ~ 6월 10일 / 2학기 9월 9일 ~ 12월 9일
3. 등록마감 : 3월 5일
4. 등록 및 수강신청
 - 문의전화 : 010-2441-4830
 - E-MAIL : jyc910106@naver.com
 - *소설등단반은 단편 1편을 이메일로 접수, 심사 후 수강신청 가능
5. 개강 및 특강 : 3월 11일 (토) 오후 2시
6. 강의 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7 광주문화재단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이메일 혹은 카페 '생오지문예창작촌'을 클릭하세요

(재) 생오지문예창작촌 부설 문예창작대학